

## 드라마 '사랑비'의 촬영지 아사히카와(旭川)



장근석, 윤아 주연의 드라마 '사랑비'에서 현대로 무대가 옮겨지는 제 5 화, 두 주인공이 처음 만나는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우연히 만난 두 주인공이 서로 부딪히며 하나(윤아)의 휴대폰이 준(장근석)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을 시작으로 둘의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 곳이 바로 아사히카와역입니다. 이 외에도 아사히카와의 겨울을 배경으로 촬영된 장면은 드라마의 5 화 6 화에 등장합니다.

사랑비에 등장한 장소 중에 하나로 카이모노 공원(買物公園)이 있습니다. 카이모노 공원은 아사히카와 역 앞의 보행자 천국(길이 1km)으로 1972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생긴 보행자 천국입니다. 카이모노 공원을 사이로 두고 양 옆에는 백화점, 음식점 등 각종 가게가 늘어서 있는데, 아사히카와에서 가장 변화한 상업지구도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매년 겨울 축제 기간 중에 열리는 '국제 얼음조각 콘테스트'의 회장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홋카이도의 중앙부에 자리하고 있는 아사히카와는 일본에서 가장 넓은 규모 of 국립공원인 다이세츠산(大雪山) 국립공원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구 약 35만 명으로 홋카이도 내에서 삿포로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제 2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분지라는 지형적 특성으로 여름은 더운 편이고 겨울에는 춥고 눈이 많이 내립니다.

아사히카와는 홋카이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쌀을 생산하는 곳으로, 다이세츠산의 풍부한 물과 분지 특유의 일교차에 의해 탄실하고 맛있는 쌀이 생산됩니다. 그리고 다이세츠산의 눈 녹은 물이 대지에 스며들어 맛있고 깨끗한 복류수가 흐릅니다. 이처럼 술을 만드는 중요한 원료인 깨끗한 물과 맛있는 쌀이 풍부한 이유로 맛있는 니혼슈를 생산하는 지역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최근 홋카이도에서는 술을 만드는데 적합한 쌀의 품종인 긴푸(吟風), 스이세이(穗星) 등이 생산되고 있는데, 아사히카와의 니혼슈 역시 이 품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아사히카와의 '소유라멘'

아사히카와를 대표하는 음식인 소유라멘(간장라면). 아사히카와는 예전에 양돈업이 활발했기 때문에 라면 스프는 돼지뼈를 기본으로 냄뼈를 없애기 위해 건멸치와 어패류, 닭뼈를 장시간 우려내서 만듭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스프에 돼지기름을 넣는 것입니다. 이것은 겨울의 추위가 매서운 아사히카와의 날씨를 고려한 것으로 스프가 빨리 식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사히카와는 소유라멘의 발상지라는 이유 때문인지 인구 대비 라면 가게가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사히카와의 근처에 위치한 '아오바(青葉)는 1947년 개업한 전통 있는 가게로 유명합니다. 화학 조미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맛이 아주 깔끔합니다.

## 오토코야마 (男山)

오토코야마는 지금부터 약 3백년 전인 에도시대, 오사카 이타미에서 양조를 시작한 명주로 역사자료에도 그 이름이 실려있는 손에 꼽히는 니혼슈입니다. 그 중에서도 준마이 다이긴쵸(純米大吟醸)는 세계 주류 콩쿠르에서 34년 연속 금메달을 수상한 경력이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양조 자료관에서는 술을 만드는 전 과정을 견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조장의 역사와 에도시대 니혼슈를 제조한 자료, 도구 등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시음코너도 마련되어 있어 무료시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오토코야마의 마크가 새겨진 니혼슈 잔을 기념품으로 증정하고 있습니다.

입구에는 생명연장의 물이라고 알려진 약수터가 있으며 방문객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샘물은 술을 제조하는 물로도 사용됩니다.



## 아사히카와의 술 (니혼슈와 맥주)

### 다카사코주조 (高砂酒造)

1899년 후쿠시마현에서 아사히카와로 이주한 고히야마(小檜山) 씨가 고히야마 주점으로 창업한 이래, 한세기에 걸쳐 니혼슈를 만들고 있는 양조장입니다. 다카사코주조의 상품 중에 단연 돋보이는 인기를 끌고 있는 술은 '국시무소(國士無双)'. 목넘김이 상쾌해 그 이름이 순식간에 전국에 알려진 후 30년 넘게 사랑받고 있는 술입니다.

다카사코주조는 술을 담근 탱크를 눈에 묻어 100일간 장기저온숙성시키기 때문에 그 맛이 더욱 특별합니다.



### 다이세츠노쿠라 (大雪乃蔵)

아사히카와의 지역술로 14년간 사랑 받아온 다이세츠노쿠라는 2012년 12월을 끝으로 양조장은 문을 닫았지만, 인터넷 상에서는 구입이 가능합니다.

<http://www.oenon-shop.jp/shop/default.aspx> (일본어)



### 다이세츠 맥주 (大雪ビール)

지비루(地ビール)라 불리는 지역맥주의 생산이 활발한 일본은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맥주를 생산해 관광상품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아사히카와에도 지비루인 다이세츠 맥주가 있습니다.

홋카이도산 원료를 사용하고 독자적인 제맥(보리를 맥아로 만드는 것) 기술로 만드는 다이세츠 맥주는 그 차별적인 맛을 인정받아 일본 맥주그랑프리에서 몇번이나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양조장과 함께 운영중인 레스토랑은 붉은 벽돌의 창고를 개조한 운치있는 공간으로 이곳에서 4종류의 생맥주를 맛있게 요리와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홋카이도의 핫카이도 여행기 1

#### 겨울에 찾은 -아사히야마 동물원-

일본 최북단의 동물원인 아사히야마 동물원. 한때는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지만 지금은 연간 300만 명이 찾는 인기 동물원. 그래서 기적의 동물원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곳에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 걸까요?

12월 중순, 아사히야마 동물원을 향해 삿포로역을 출발합니다. 삿포로역에서 목적지인 아사히카와역까지는 쾌속열차로 1시간 20분이 소요됩니다. 삿포로역에서 산 에키벤(駅弁:역이나 기차 안에서 파는 도시락)으로 아침 식사를 마치니 그새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잔뜩 기대에 부풀어 역을 나오니 삿포로는 날씨가 맑지만 했는데 여기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아사히카와는 겨울이 춥고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라는 데 역시나 그 말이 맞습니다. 동물원까지는 역 건너편 정류장에서 시내 버스를 타고 30분 정도 더 가야 하지만, 중점이 동물원이기 때문에 별 어려움없이 동물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사히야마 동물원은 이번이 벌써 3번째 입니다. 지난 여름에 한번, 겨울에 한번 왔었는데 겨울에 다시 찾은 이유는, 겨울에만 볼 수 있는 펭귄 산책과 바다표범의 모구모구타임(먹이시간)이 또 보고싶었기 때문입니다.



펭귄 산책은 아사히야마 동물원이 자랑하는 겨울의 진풍경으로 눈길 위를 걷는 펭귄을 하루에 2번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입장한 때가 마침 산책 시간이었기 때문에 바로 펭귄을 보러 갔습니다. 펭귄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게 이미 산책로를 따라 관람객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조금 있자 펭귄들이 줄을 지어 걸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손 내밀면 땅을 거리에서 뒹뒹뒹 걷다가 넘어져서는 눈 위를 헤엄치며 기어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귀여워서 눈을 땔 수가 없습니다.

아사히야마 동물원은 동물들의 특성을 살린 '행동전시'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펭귄 산책도 단순히 관람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함만이 아니라 운동량이 적은 겨울에 펭귄이 살찌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펭귄 산책의 여운을 달래기 위해 다음으로 들어간 곳은 펭귄관. 입구에 들어서자 수중터널이 펼쳐지고, 그 안에서 민첩한 몸놀림으로 헤엄치는 펭귄을 보고 있자니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서 헤엄치는 펭귄은 마치 하늘을 나는 새의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아사히야마 동물원은 펭귄의 날고자 하는 소망을 이루어주는 곳이라는 데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발길을 옮긴 곳은 바다표범관. 이곳은 대형 수조를 아크릴 원통 기둥으로 만들어 그 안에서 헤엄치는 바다표범을 360도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빠른 바다표범을 쫓으려고 눈이 바빠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다표범은 수조 안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모구모구 타임'. 이것은 바다표범의 먹이 시간으로 조련사가 바다표범의 특성을 설명하고 보여주면서 먹이를 주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들은 설명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다표범이 주식인 임연수어를 먹을 때 반드시 머리부터부터 삼킨다는 것. 정말이지 조련사가 꼬리를 향하게 쫓더니 쟁쟁하게 방향을 바꿔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아직 어린 바다표범은 방향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꼬리를 향하게 주면 아예 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설명을 들으며 실제로 그 습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더욱더 흥미롭습니다.

다음은 북극곰 전시관. 입장하면 바닷속이 연상되는 큰 수조가 있고 사람의 키보다 높게 물이 차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 절벽 평지에는 어른 크기만한 북극곰이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좋으면 북극곰이 물 속으로 침범 뛰어드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다표범 사냥을 즐겨하는 북극곰이 수조 밖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바다표범으로 착각해 물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번에 왔을 때 그 모습을 2번이나 보고 가서 기대하며 20분 정도를 기다렸지만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못 보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들어간 곳은 침팬지관. 장난기 많고 호기심 많은 침팬지의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곳에 한시간이나 있었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구경거리는 싸움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려보이는 침팬지 두마리가 치고 박고 싸우는 모습이 어찌나 웃기던지.. 집에 돌아가는 길에 혹시 나해서 다시 들렀더니 둘 다 지쳤는지 부모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이 아까와는 다르게 너무 귀엽습니다.

동계 시즌 중에는 실내의 침팬지관만 개방하지만 하계 시즌에는 야외의 '침팬지의 숲'에서도 침팬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스카이프릿지라고 불리는 투명 아크릴 터널에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 위에 있는 침팬지는 사람들을 구경거리로 보는 것입니다. 발상을 전환한 행동전시의 대표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헛서펜더, 긴팔원숭이, 예조사슴, 기린 등 다양한 동물들을 설원의 동물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따뜻한 곳에 사는 기린은 하루에 몇시간만 시간을 정해 야외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동물원을 둘러보다보면 여기저기 손수 쓴 게시물이 눈에 띕니다. 이것은 사육사가 동물과의 에피소드나 특성 등을 세세하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때 그때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그 재미로 동물원에 다시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동물들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동물원 안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모습들을 관람객들이 흥미롭게 볼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연구하는 아사히야마 동물원. 그런 까닭에 '행동 전시'라는 새로운 발상으로 동물과 관람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동물원. 이것이 바로 폐원 직전에서 인기 동물원으로 거듭나게 된 이유겠지요~

※ 아카렌가 통신 과월호는 홋카이도청 국제과 한국어 홈페이지 <http://www.pref.hokkaido.lg.jp/foreign/korean.ht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홋카이도 관광 정보는 홋카이도 관광진흥기구 홈페이지 <http://hokkaido.japanpr.co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 및 발행: 홋카이도 종합정책부 지사실 국제과 (北海道札幌市中央区北3条西6丁目 TEL: +81-11-204-5114 FAX: +81-11-232-4303)